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실 도록

(축 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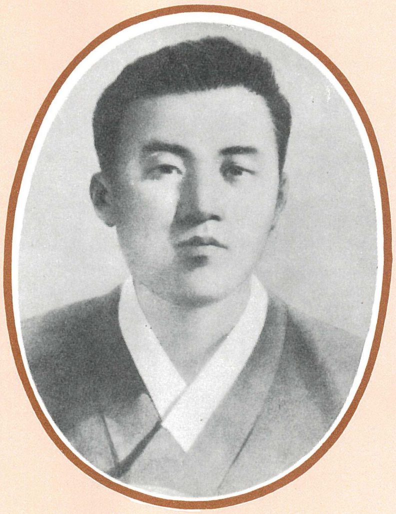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 앙 상 임 위 원 회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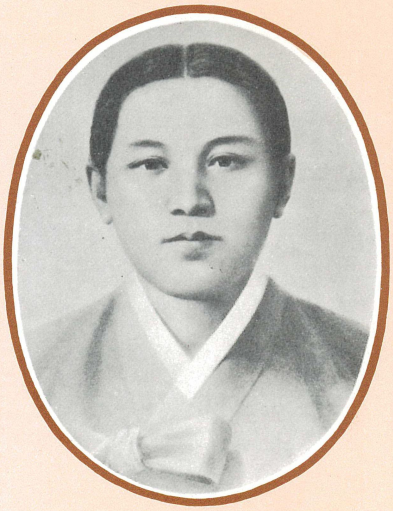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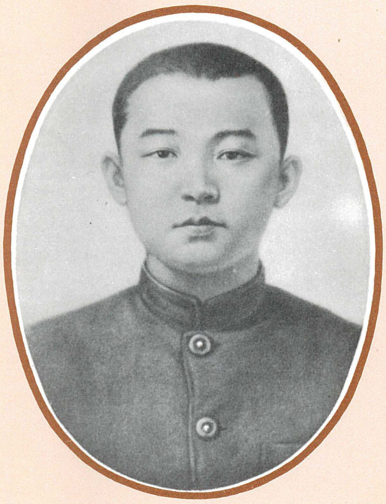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혁명적가정에서 태여나셨다(1)



김형직선생님



강반석선생님



열네살때의 김일성원수님



김형권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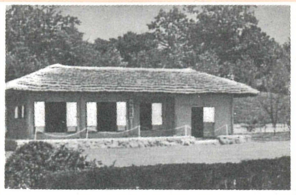
김철주선생님

김일성원수님은 혁명적가정에서 태여나셨다(2)



《조선국민회》를 지도하시는 김형직선생님

열렬한 애국자이시며 교육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은 일제를 반대하고 조선독립을 성취하기 위하여 1917년 3월 23일 강동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비밀조직인 《조선국민회》를 조직하고 지도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이 청소년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시던 만경대순화학교

김형직선생님은 만경대에 계실 때 이 순화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기에 힘쓰시였다.

열렬한 애국자이시며 불요불굴의 반일투사이시며 교육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은 1894년 7월 10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여 일찍부터 혁명투쟁에 나서시였다.

선생님은 가시는 곳마다에서 조국광복과 후대교육을 위해 몸바치셨다.

그러시다가 일제경찰놈들에게서 받은 모진 고문과 압록강연안에서 입은 심한 동상으로 몹시 앓으시다가 1926년 6월 5일 만 32살에 세상을 떠나셨다.

강반석선생님은 1892년 4월 21일 평안남도 대동군 룡산면 하리 칠골에서 탄생하시였다.

선생님은 김형직선생님을 따라 가시는 곳마다에서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성의껏 도와주셨고 김형직선생님이 돌아가신후부터는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업을 도와주시면서 직접 혁명사업에 참가하셨다.

그러시다가 1932 년 7월 31일 만 40살에 세상을 떠나셨다.



일제경찰놈들과 맞서 싸우시는 강반석선생님

강반석선생님은 1917년 강동에서 일제경찰놈들이 달려들어 집을 뒤지며 행패질할때 《자! 볼테면 봐라》고 하시며 놈들의 낯에 침을 뱉으면서 싸우셨다.



강동에서 《계》회원들과 함께 사업을 의논하시는 김형직선생님

김형직선생님은 《조선국민회》의 외곽조직으로서 《학교계》와 《비석계》를 무어 그 주위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셨다.



압록강연안에서 혁명활동을 하시는 김형직선생님

김형직선생님은 1924년 겨울 일제경찰놈들에게 붙잡혀 포평주재소에서 후창으로 가시던 길에 연포리주막집에서 빠져나와 동북으로 건너가셨다.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업을 도와주시는 강반석선생님

강반석선생님은 김형직선생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직접 혁명사업에 참가하시여 부녀회원들을 지도하시는 한편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업을 도와주셨다.



강동명신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시는 김형직선생님

김형직선생님은 청소년들을 우리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훌륭한 애국자로 교양하기에 힘쓰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이 중강진에서 혁명활동을 하실 때 계시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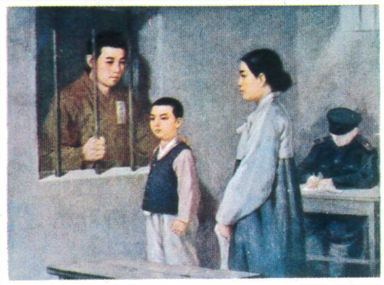
김형직선생님이 무송에서 혁명활동을 하실 때 계시던 소남문거리 집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



만경봉에서 아버지의 교양을 받으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어린시절에 만경봉에 자주 오르시여 아버지에게서 슬기롭고 용감한 애국선렬들이 미국침략선 《샤만호》를 격침시킨 이야기를 비롯하여 원쑤를 미워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애국심을 키우셨다.



평양감옥에서 아버지를 만나뵈시는 김일성원수님

어린 원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평양감옥에 갇혀계시던 아버지를 찾아뵈시고 어서 커서 아버지의 원쑤인 일본놈들을 때려부시리라 굳게 마음다지셨다.

조선의 아가야
우리 아가야
무럭무럭 자라서
얼른 잠간 소학교
가정에는 효자동
이웃에는 화목동
나라에는 영웅동
우리 나라 영웅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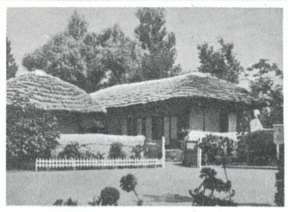
어머니에게서 교양을 받으시는 김일성원수님

《 … 저앞에 대동강얼음이 다 풀리고 나무잎이 푸르러도 너의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는구나! 너의 아버지가 나라를 찾기 위하여 싸웠는데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지를 붙들어 갔겠니? 네가 어서 커서 아버지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



할아버지에게 잘 익은 복숭아를 먼저 드리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어린시절부터 부모와 웃어른들을 존경하셨으며 례절을 잘 지키셨다.



김일성원수님께서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 고향집

김일성원수님은 1912년부터 1919년 사이에 어린 시절을 만경대 고향집에서 보내시였다.



일본경찰놈들을 고무총으로 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아버지를 붙잡아간 경찰놈들이 달려들어 집을 뒤지며 행패를 부릴 때 치솟는 격분을 참지 못하여 고무총으로 놈들의 면상을 쏘았다.



어머니앞에서 글을 쓰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아버지께서 선물로 받으신 필묵으로 애국의 뜻을 익히시면서 공부에 열중하셨다.



김일성원수님께서 군사놀이를 하시던 《군함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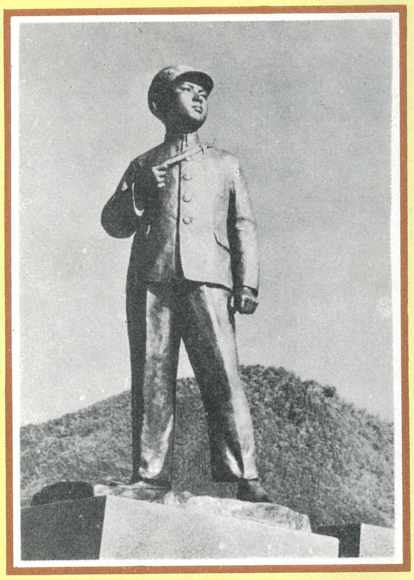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일제놈들을 족치러 간다고 하시면서 이 《군함바위》에서 군사놀이를 자주 하셨다.



일제를 반대하는 3. 1운동시위대렬에 참가하신 김일성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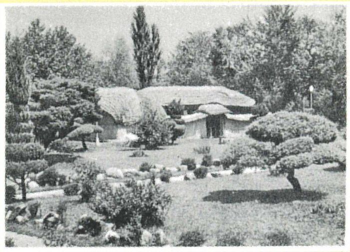
어리실적부터 원쑤를 미워하고 나라를 사랑하신 김일성원수님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일떠선 인민들의 3.1운동시위대렬에 참가하시여 일제에 대한 증오감을 금치 못하셨다.

김일성원수님의 배움의길은 혁명을위한 길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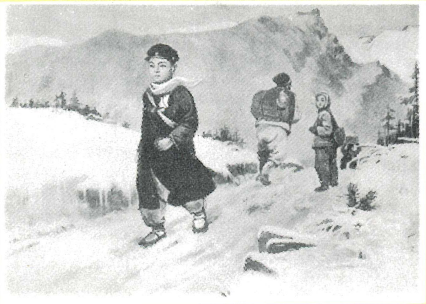
포평니루터에 세워진 김일성원수님의 동상

《나는 열네살때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나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이렇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김일성)



김일성원수님이 창덕학교를 다니실 때 계신 칠골집

팔도구에서 고향 — 만경대로 나오신 김일성원수님은 이 집에서 창덕학교를 다니시면서 밤가는줄 모르시고 공부에 열중하셨고 동무들의 학습도 늘 도와주시군하셨다.



배움의 천리길

김일성원수님은 아버지께서 《…사람은 우선 제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는 말씀을 들으시고 열두살때에 8도구에서 혼자몸으로 천리길을 걸어 고향 만경대로 나오셨다.



김일성원수님이 다니신 창덕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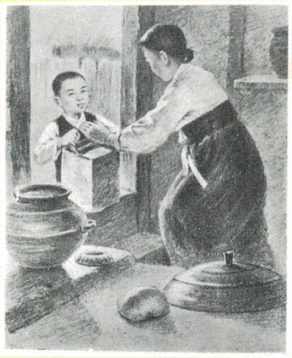
만경봉에서 학습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학교에서 돌아오시면 만경봉에 자주 오르시여 저녁 늦게까지 학습에 열중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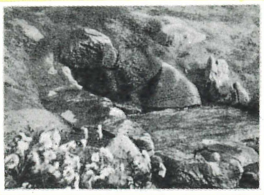
림강으로 떠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팔도구에서 어머님을 만나뵈신후 곧 그길로 동생들을 데리고 림강으로 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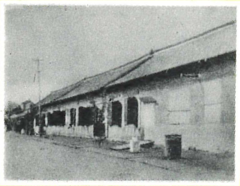


어머님의 일손을 도와드리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어리실적부터 늘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셨고 어린 동생들을 잘 돌봐주셨다.



김일성원수님이 랭수마찰을 하시던 만경대 《샘물터》



김일성원수님이 다니신 무송제1소학교

김일성원수님은 일찍부터 혁명활동을 하셨다



열여섯 살때의 김일성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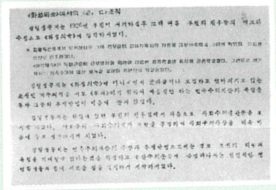
《…우리도 학생시절에 공청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을 망라하여 각본도 쓰고 작곡도 하고 연극도 꾸며가지고 선전대를 만들어 군중앞에서 공연도 하고 연설도 하니까 혁명한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대중을 각성시킬수 있었고 청년들을 많이 묶어세울수 있었습니다.…》

(김일성)



학생들속에서 맑스—레닌주의학습을 지도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조국광복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맑스, 엥겔스선생이 쓰신 《공산당선언》, 《자본론》 맑스주의철학…등을 비롯하여 조선력사와 지리 그리고 혁명적인 문학작품들을 많이 읽으셨고 수많은 동무들에게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하여 그들의 학습을 지도하여 주셨다.



《화성의숙》에서의 《ㅌ, ㄷ》조직

김일성원수님은 1926년 여름 《화성의숙》에 입학하신후 《타도제국주의동맹(ㅌ, ㄷ)》을 조직하셨다.

《ㅌ, ㄷ》의 목적은 장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당면하게는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자는것이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에 남기신 말씀과 권총을 전달받으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께서 남기신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국광복의 뜻을 꼭 이루리라 굳게 결심하셨다.



김일성원수님께서 길림 육문중학교에 다니실 때 비밀리에 공청회의를 지도하시던 길림북산공원에 있는 약왕묘와 지하실로 오르내리실 때 사용하신 사닥다리



공청회의를 지도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니실 때 비밀리에 여러 지방의 공청조직대표들과 자주 만나시여 사업을 토의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혁명임무를 주시군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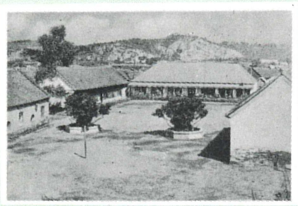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무송에서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하고 지도하셨다

《새날소년동맹》은 조선독립을 위하여 일제와 투쟁하는것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새날》이라는 신문을 내여 무송시내와 주변의 여러 농촌들에 보내는 한편 연예대를 조직하여 인민들속에서 반일선전을 하였다.



길회선(길림—회령)철도부설 반대투쟁을 조직지도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공청조직과 《반제청년동맹》, 《류길학우회》등 조직들을 동원하여 일제의 만주침략을 위한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여 1928년에 반일시위를 조직지도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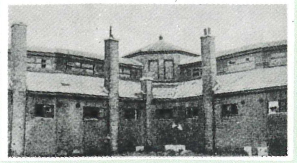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이 다니신 길림육문중학교

김일성원수님은 1927년 봄에 길림육문중학교에 입학하신후 《조선인길림소년회》, 《조선인류길학우회》, 《반제청년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하시고 애국적인 소년들과 청년들을 묶어세우시였다.



김일성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길림육문중학교학생들의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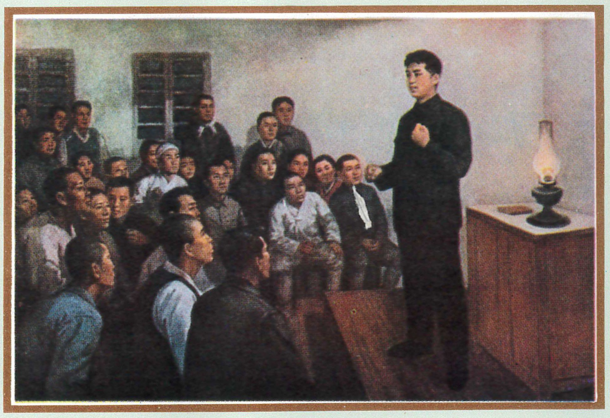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니실 때에 반동교원들과 일제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을 조직지도하시였으며 직접 그 앞장에 서서 싸우셨다.



김일성원수님이 갇혀계시던 길림감옥

김일성원수님은 일제와 중국반동군벌에 의하여 감옥에서 갖은 탄압과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공산주의의 굳은 신념을 굽히지 않으시고 앞으로의 투쟁을 준비하셨다.

김일성원수님은 항일무장투쟁을 준비하셨다



우리는 우선 무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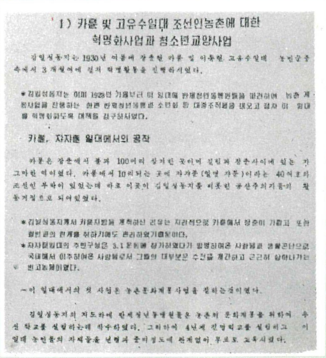
《…우리가 조국을 광복하고 인민들의 민족적 해방과 사회적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공동의 원쑤 일제를 조선과 만주에서 몰아내고 인민들이 자기 의사와 자기의 손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적주권을 건립하여야 한다. …무장한 적은 무장으로써만 대항할수 있고 그를 쳐부실수 있으며 최후승리를 쟁취할수 있는것이다. … 무장한 적을 무장으로 대항하여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 청년들이 우선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



농촌지역에서 혁명활동을 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길림감옥에서 나오시자 몹시 쇠약해진 몸도 돌보시지 않으시고 농촌군중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혁명화함으로써 일제가 만주를 침략할 때 그들어 일어나 싸우도록 하시는 한편 항일무장대오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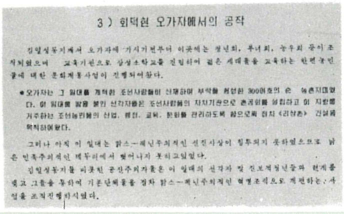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1931년 11월 명월구회의후 무장대오조직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연길, 화룡현, 안도현내의 비밀조직들에 공작원을 보내시는 한편 직접 소사하, 대사하, 흥륭촌에서 활동하시면서 무장을 준비하셨다.


1) 카륜 및 고유수일대 조선인농촌에 대한 혁명화사업과 청소년교양사업

카륜, 자자툰 일대에서의 공작

카륜 및 고유수 일대에서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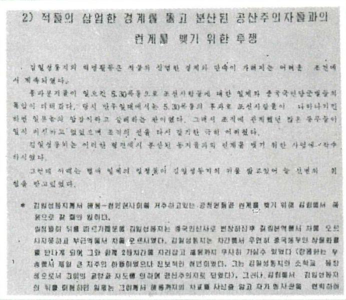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1930년 여름에 조선인 농촌에 학교들을 세우시고 청소년들과 군중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시는 한편 청년회 (반제청년동맹) 부녀회, 농민협회, 소년탐험대…등 대중단체를 조직하고 지도하셨다.


3) 회덕현 오가자에서의 공작

회덕현 오가자에서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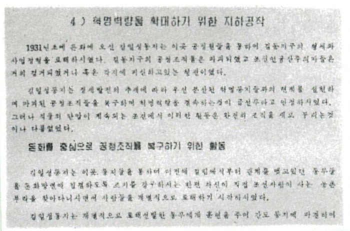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오가자에 이미 있던 대중단체늘을 혁명적인 조직으로 다시 꾸리시는 한편 소년선봉대와 소년탐험대를 직접 조직지도하시면서 농촌군중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2) 적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분산된 공산주의자들과의 련계를 맺기 위한 투쟁

분산된 공산주의자들과 련계를 맺기 위한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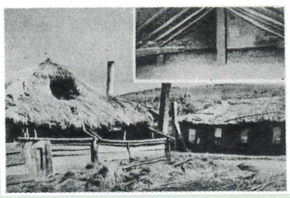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밀정들이 뒤를 따르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해룡, 교화, 할빈, 돈화…등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곳에 흩어진 동지들과 련계를 맺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셨다.


4) 혁명력량을 확대하기 위한 지하공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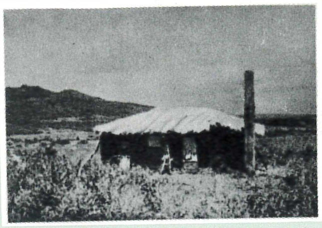
돈화를 중심으로 공청조직을 복구하기 위한 활동

혁명력량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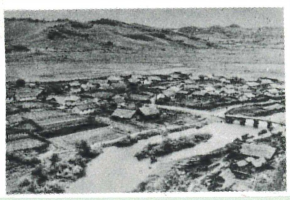
오가자에서 혁명력량을 준비하시던 김일성원수님은 1931년초에 또다시 돈화에 오시여 이곳을 중심으로 공청조직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하시고 이해 봄에 있은 명월구회의후에는 안도현에 나오시여 혁명력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하셨다.



김일성원수님이 항일유격대의 조직를 위하여 비밀회의장소로 사용하시던 안도의 서문밖거리 집



강반석선생님이 사시던 안도현 소사하의 집



김일성원수님이 항일유격대조직을 준비하실 때에 계시던 안도현 흥룡촌

김일성원수님은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고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셨다



《항일유격대의 사상은 맑스—레닌주의사상이였으며 그 목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였습니다.》 (김일성)

항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1932년 4월 25일 안도에서 처음으로 조선인민의 진정한 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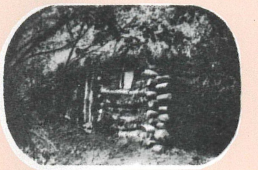
유격근거지 인민들앞에서 연설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유격근거지안에 당 및 정권기관을 비롯하여 공청, 반일회, 농민협회, 부녀회, 아동단…등 대중단체들을 조직하고 지도하시는 한편 인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 유격대를 더욱 확대강화하셨다.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

김일성원수님은 항일무장투쟁의 어려운 나날에도 항상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귀중히 여기시고 가시는곳마다에서 몸소 인민들의 일손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김일성원수님이 계시던 소왕청유격근거지의 귀틀집

김일성원수님은 이 집에서 무장투쟁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하셨다.



인민혁명정부수립을 지지하는 유격근거지인민들

김일성원수님은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하시고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셨다. 인민혁명정부는 근거지에서 토지개혁을 비롯한 여러가지 민주주의적인 시책을 실시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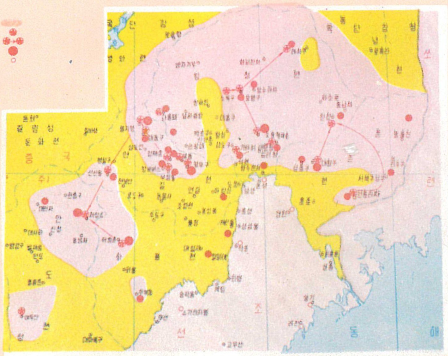
반일부대와 담판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신변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시고 몸소 반일부대를 찾아가시여 통일전선을 맺을데 대한 담판을 하시고 공동작전을 하는데 성공하셨다.



소왕청방어전투 (1933. 12 ~ 1934. 1.)

항일유격대원들은 유격근거지를 없애려고 하루에도 여러차례 달려드는《토벌대》놈들과 싸워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유격근거지를 지켜냈다.



유격근거지—해방지구 분포도

김일성원수님은 1932년 여름부터 우리 나라의 북부국경지대 넓은 지역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하셨다.



동녕현성진공전투 (193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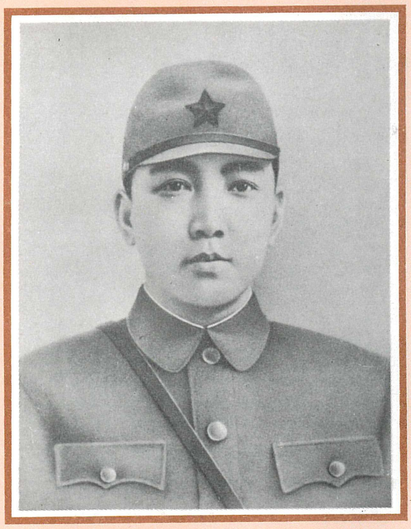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의 령도하에 처음으로 반일부대와 련합하여 진행한 동녕현성진공전투는 조중인민의 반제통일전선형성에 큰 의의를 가졌다.



무기를 만드는 유격대원들과 《연길폭탄》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원수님께서 무기와 폭탄을 만들어낼데 대한 명령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수많은 무기와 폭탄을 만들어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김일성원수님은 조선인민혁명군을 편성하시고 광활한 지대에로 진출하셨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1934년 봄에 여러 지역의 유격부대들을 합쳐 조선인민혁명군을 편성하셨다.

조선인민혁명군 편성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적이고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게 하였고 보다 강대한 힘으로 대규모적인 적극적투쟁을 할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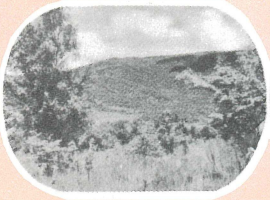


로흑산에서의 승리 (1935. 5)

김일성원수님은 북만원정을 떠나시기전에 인민들을 못살게 굴던 로흑산부락의 《정안군(악질위만군)》300여명을 족쳐버리고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였다.



조국광복을 위하여



왕청현 다홍왜회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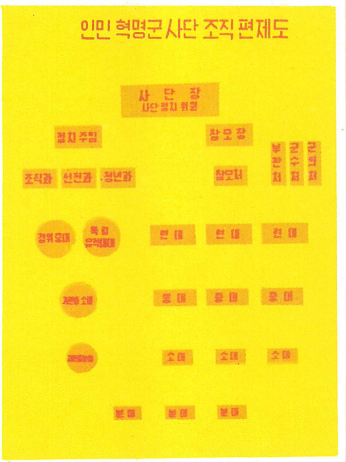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1935년 2～3월초에 걸쳐 왕청현 다홍왜에서 회의를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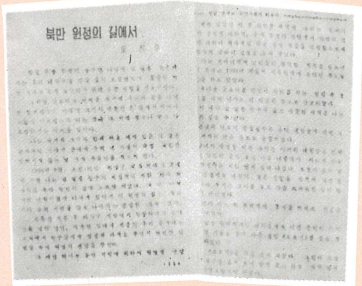
회의에서 김일성원수님은 반《민생단》투쟁에서 저지른 대국배타주의자, 반혁명종파분자들의 죄행을 비판하시고 혁명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방침을 내놓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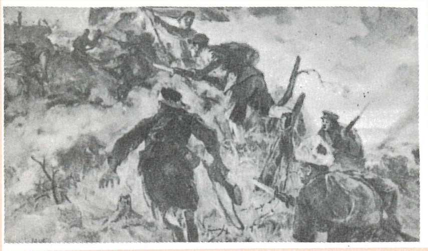
왕청현 요영구회의 장소

김일성원수님은 1935년 3월말에 있은 요영구회의에서 대국배타주의자들과 혁명을 좀먹던 종파분자들의 죄행을 폭로하시고 혁명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유격근거지를 해산하고 보다 광활한 지대에 나가 혁명의 씨앗을 뿌리며 무장투쟁을 더욱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셨다.





북만 원정의 길에서



왕청현 라자구전투 (193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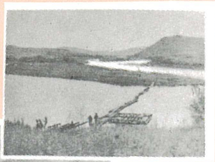
라자구전투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보여주었으며 반일부대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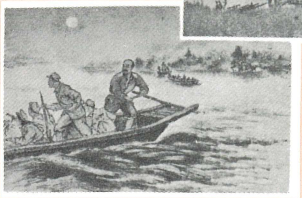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김일성원수님의 명령과 지시라면 언제 어떤 어려운 처지에 처하였어도 기어코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건는 경박호나루터

김일성원수님은 1935년 여름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북만원정의 길에 오르시였다.

북만원정을 통하여 북만의 넓은 지대에 혁명의 씨앗을 뿌렸으며 이곳 유격대원들과의 친밀한 련계를 맺고 인민혁명군을 더욱 확대강화하였다.

김일성원수님은 조선인민이 나아갈길을 밝혀주셨다



남호두회의를 지도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1936년 2월 녕안현 남호두에서 회의를 소집하셨다.

회의에서 김일성원수님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하고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강화하며 인민혁명군부대를 국경지대에 진출시켜 새로운 유격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셨다.



오직 장군님을 믿고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우리 인민은 오직 김일성원수님을 태양과같이 믿고 승리할 앞날을 그려보며 일제와 싸우는 항일유격대를 적극 도왔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작성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1936년 5월 5일에 조선인민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를 조직하시고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강령을 내놓으셨다.

회장으로는 김일성원수님을 모셨다.



국내혁명공작임무를 주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1936년 12월 박달선생님을 만나시여 국내혁명공작에 대한 임무를 상세히 주셨다.



국내공작임무를 주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항일유격대원들을 국내에 보내시여 혁명조직을 지도하게함으로써 애국적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더욱 불러일으키셨다.



학습을 지도하시는 김일성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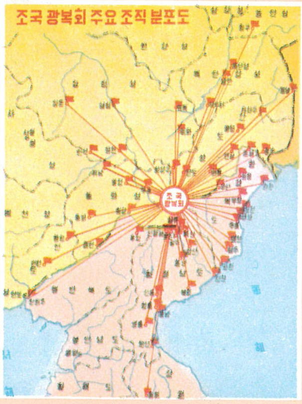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어려운 투쟁속에서도 대원들에게 학습장과 연필을 마련하여주셨으며 직접 학습을 조직지도하셨다.



김일성원수님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쓰시던 도장

김일성원수님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쓰시던 권총

김일성원수님이 희샤즈거우 밀영에 계실 때 쓰시던 난로



조국광복회 주요조직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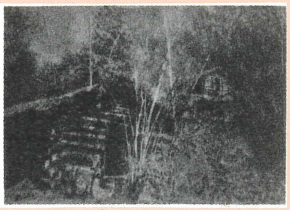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직하신 조국광복회 조직은 우리 나라 각지와 동만, 남만, 북만의 넓은 지역에 급속히 퍼져 광범한 반일군중속에 뿌리를 박았다.



조국광복회 기관지

《3.1월간》첫호 내용의 일부

《3.1월간》제1기 12월호



장백현 희샤즈거우밀영

(언덕우의 집은 김일성원수님이 계신 사령부의 집이고 아래집은 대원들이 있던 집이다.)

김일성원수님이 지펴올린 보천보의 홰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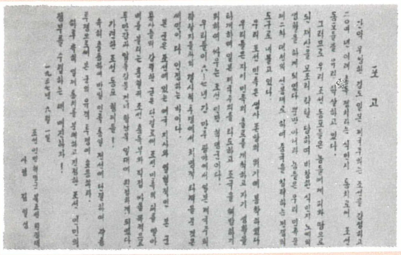
보천보의 홰불

《그 의의는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데 있습니다. 보천보전투는 조선사람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다, 내선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놈과 조선사람은 동조동근이 아니다, 조선사람은 일본놈과 함께 중국을 침략하지 않는다, 조선사람은 모국어를 버리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성을 일본놈성으로 바꾸지 않을것이다,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일본놈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김일성)



조국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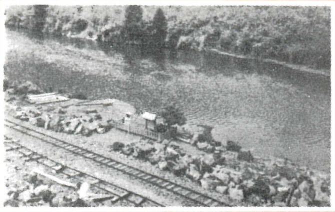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일제의 착취와 억압밑에서 신음하는 조선인민에게 민족해방의 불씨를 안겨주며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조국으로 향하셨다.



포 고



조국진군을 앞두시고 밤깊도록 작전계획을 하시는 김일성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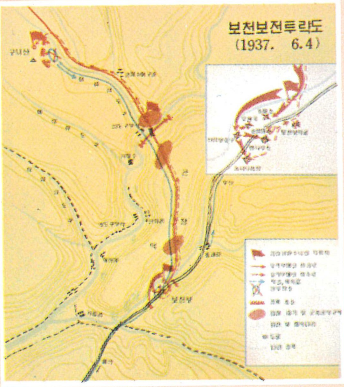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이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거느리시고 건느신 구시물동



보천보전투때에 유격대원들이 들이친 주재소



보천보전투때에 유격대원들에 의하여 불타버린 면사무소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1967년 6월 보천보전투승리 30주년에 즈음하여 세움)



간삼봉전투(1937. 6. 30)

김일성원수님의 령활한 전략전술에 의하여 진행된 간삼봉전투는 일제에게 또다시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시위하였으며 인민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더욱 불러일으켰다.

김일성원수님은 또다시 조국에로 진출하셨다



몽강현 남패자회의를 지도하시는 김일성원수님

…우리는 적들이 동기 〈토벌작전〉에서 기진맥진하여 제 소굴로 되돌아간 이때 놈들에게 숨쉴틈을 주지 말고 총반격에로 넘어가야 하며 조국에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여야 우리는 피복, 식량, 무장을 제때에 보충하고 우리의 력량을 회복할수 있으며 또다시 조국에로 진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해방의 서광을 던져주며 파괴된 혁명조직을 복구하여 그들을 새로운 힘으로 투쟁에 일으켜 세울수 있다. … (김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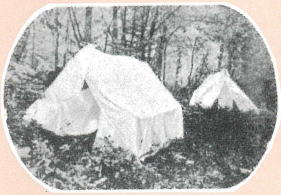
조국에로

김일성원수님은 국내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더욱 고무하기 위하여 몸소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무산지구에로 나오셨다.



한홉의 미시가루

김일성원수님은《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느날 대원들이 권하는 한홉의 미시가루를 도로 대원들에게 나누어주시면서 《이것을 한말쯤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배가 부를거요. 어서 받으라구.》하시며 여느때와 같이 깊은 사랑의 정으로 대원들을 보살펴주셨다.



몽강현 남패자회의 장소

김일성원수님은 1938년11월에 몽강현 남패자에서 회의를 하셨다.

회의에서 김일성원수님은 우선 《열하원정》이 잘못 조직된 모험적인 일이였다는것을 비판하시고 앞으로 항일유격투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항일련군제1, 2군부대들을 세개방면군으로 개편하시고 그들의 활동지역을 정해주셨다. 그리고 인민대중속에 혁명조직을 광범히 내오고 강력한 군사활동과 대중정치활동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이 청봉숙영지 나무에 새긴 구호

김일성원수님이 거느리신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는 1939년 5월 18일 압록강을 건너 조국의 청봉에서 하루밤을 숙영하면서 해방될 조국의 미래를 그리며 나무에 구호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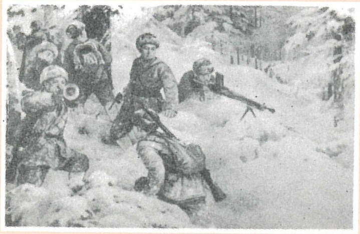
학습에 열중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

항일유격대원들은《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고 하신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맑스주의학습과 김일성원수님이 직접 쓰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비롯한 많은 문헌들을 학습하여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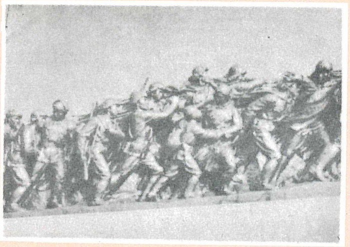
조선인민혁명군대원을 어버이심정으로

김일성원수님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해설과 설복으로 교양하시여 훌륭한 혁명투사로 키우셨다.



사령부를 보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15성상 어려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였다.



고난의 행군

김일성원수님은 남패자회의후 조선혁명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거느리시고 사방으로 달려드는 적들과 하루에도 여러차례의 전투를 계속하시면서 모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가며 100날도 넘는 행군끝에 백두산지대로 나오셨다.



대홍단전투 장소



대홍단전투 (1939. 5)

대홍단전투는 김일성원수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시위하였으며 일제통치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내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었다.

김일성원수님은 아동단을 조직하고 지도하셨다



아동단원들속에 계시는 김일성원수님

《너희들은 우리 조국의 꽃봉오리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너희들이 명랑할 때 우리도 명랑하고 너희들이 잘 자라면 우리도 기운이 솟는다.

어떠한 고난속에서도 실망과 비관이 없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어서어서 무럭무럭 커서 조국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라!》 (김일성)



통신련락을 하는 아동단원들

항일무장투쟁시기 아동단원들은 눈보라가 앞을 가리며 맵짠바람이 살을 에일듯 불어오는 추운 겨울에도 유격대아저씨들을 도와 앞을 막아서는 왜놈들의 총칼을 헤치며 용감하게 통신련락을 하였다.



연예공연을 하는 아동단원들

아동단원들은 어려운 투쟁의 나날에도 승리의 신심을 안고 혁명적인 노래와 춤으로 유격대아저씨들과 인민들앞에서 공연하여 힘을 북돋아주었다.



비밀을 지키는 아동단원

아동단원들은 혁명의 비밀을 첫째가는 생명으로 여기고 적들의 악착한 고문앞에서도 끝까지 비밀을 지켜냈다.



아동단원들이 통신련락 및 삐라 공작을 할때 쓰던 도구들

삐라공작을 하는 아동단원들

아동단원들은 용감하게 적들의 병영에까지 삐라를 붙여 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인민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소년중대원

김일성원수님의 품속에서 자란 아동단원들은 소년중대에 입대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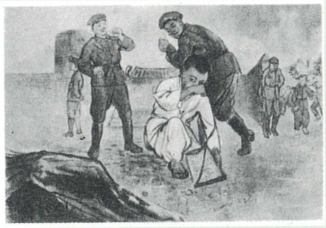
혁명에 충실할것을 맹세하는 아동단원들

아동단원들은 붉은기앞에서 김일성원수님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랄것을 맹세다졌다.





김일성원수님과 아동단원들



정찰활동을 하는 아동단원

아동단원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의 비밀을 알아내여 유격대아저씨들의 전투승리를 도왔다.



농사일을 돕는 아동단원들

아동단원들은 학습과 훈련도 잘 하였지만 유격근거지내 아버지, 어머니들의 농사일도 잘 도와주었다.



화룡현 어랑촌 유격근거지 아동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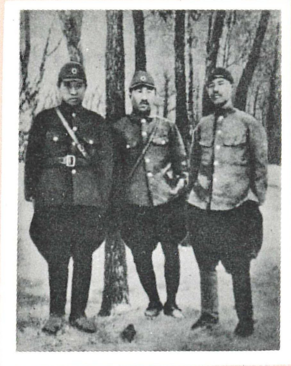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항일무장투쟁의 어려운 나날에도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유격근거지에 아동학교를 세우시고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공부시키셨다.

김일성원수님은 다가오는 조국해방을 맞기위한 투쟁을 조직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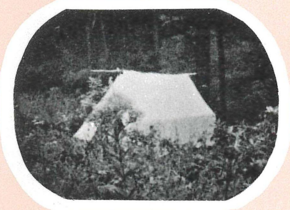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김일성원수님(1943)

《1941년경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투쟁방침을 고쳤습니다. 한편으로는 혁명의 전도를 예견하고… 많은 간부를 양성하였으며, 다른편으로는 력량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부대활동을 소부대활동으로 변경하고 지하투쟁을 강화하였습니다.》(김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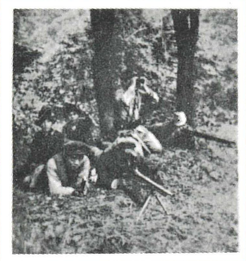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김일성원수님과 전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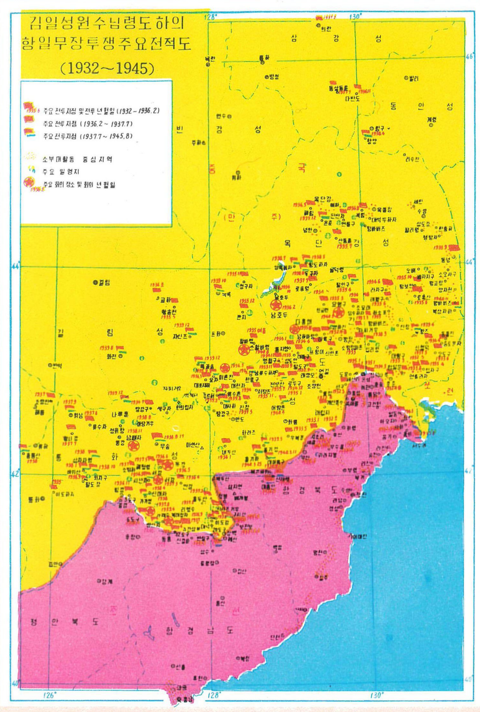
돈화현 소할바령회의 장소

김일성원수님은 1940년 8월 소할바령회의에서 새로운 투쟁방침을 내놓으셨다.



군사훈련에 열중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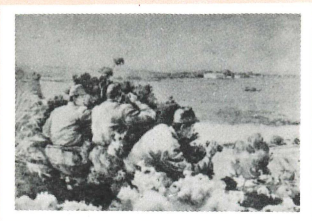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소할바령회의에서 내놓으신 김일성원수님의 방침을 받들고 원쑤를 족치는 심정으로 군사훈련에 열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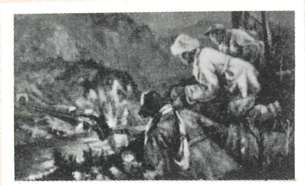
정치학습에 열중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다가오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기 위하여 군사훈련과 함께 정치학습에 열중하였다.



평양비행장을 정찰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소조원들

조선인민혁명군 정찰소조들은 국내 깊이까지 들어와 놈들의 비행장, 화약창고, 병영 등의 군사비밀을 알아내는 정찰활동을 하였다.



적교량을 파괴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소조원들

조선인민혁명군 소조원들은 각지에서 적의 군사시설을 파괴하여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유격대의 사상체계를 계승하며 그 우수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계승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김일성)



서수라전투(1945.8)

김일성원수님의 령도하에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조국강토에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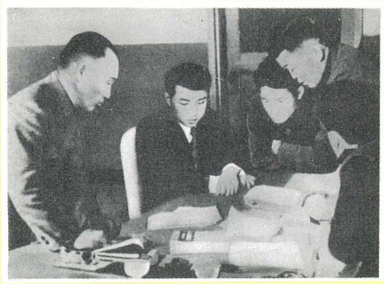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조국에 돌아오셔 조선인민에게 새생활을 안겨주셨다



조국에 돌아오신 김일성원수님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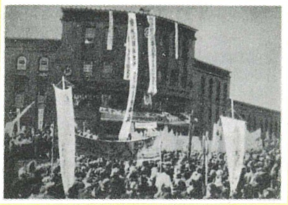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1945년 8월 15일 우리 나라를 해방하셨다.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면서 조국에 돌아오신 김일성원수님은 조선인민에게 새 생활을 안겨주시고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셨다.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 제3 차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초안을 토의하시는 김일성원수님 (1945. 12)

김일성원수님은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결성하시고 당창건을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을 경축하는 평양시경축대회

1946년 2월 8일 김일성원수님의 지도하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였다. 위원장으로는 김일성원수님을 모셨다.



로동법령을 지지하는 평양시민들의 시위

김일성원수님이 발표하신 1946년 6월 24일 로동법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력사상 처음으로 8시간 로동제와 로동보호의 혜택을 받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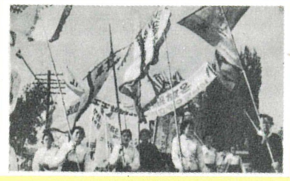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1 차 대표대회에서 보고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1946년 1월 17일 조선민주청년동맹이 창립되였다.



토지를 분여받는 농민

김일성원수님이 발표하신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일제와 지주놈들이 가지고있던 땅을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농민들이 진정한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을 지지하는 녀성들의 시위

김일성원수님은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시여 처음으로 녀자들도 남자들과 동등하게 사회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가할수 있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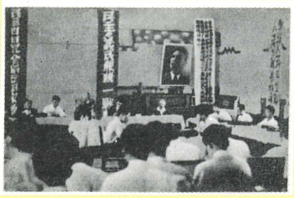
조선소년단창립

김일성원수님은 1946년 6월 6일 조선소년단을 세워주셨다.



국가에 현물세를 바치는 농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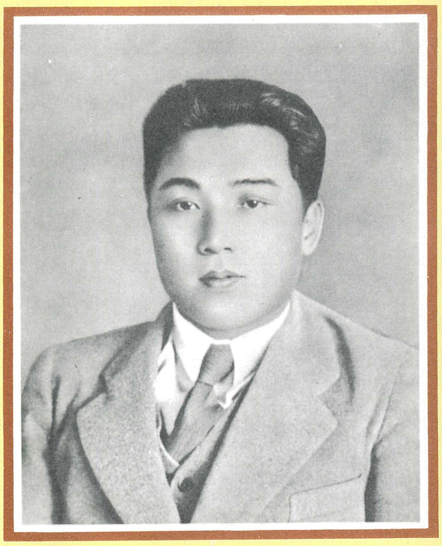
일제와 지주의 착취에서 벗어나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정성들여 가꾼 곡식을 선참으로 나라에 바쳤다.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지지하는 로동자들

김일성원수님은 1946년 8월 10일 중요산업국유화법령을 발표하시여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본가놈들의 착취를 받던 로동자들을 공장의 주인으로 되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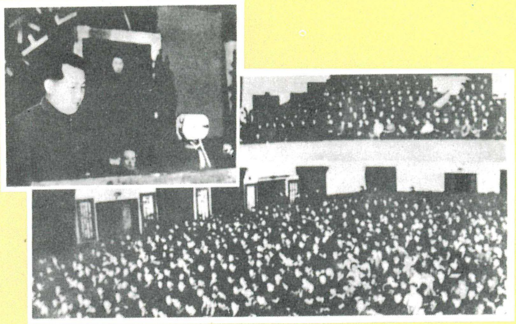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민주기지를 강화발전시켰다



공화국 창건시기의 김일성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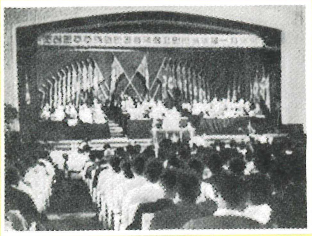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조국의 평화적통일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그의 투쟁에서 강유력한 무기입니다.

이리하여 세계지도에서 오래동안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새로운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발을 들고… 위대한 사회주의진영의 성원으로서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되였습니다.》 (김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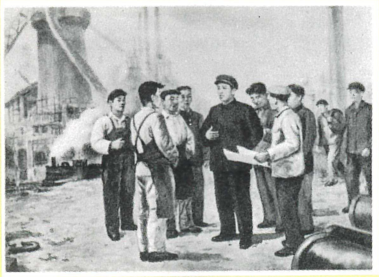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보고하시는 김일성원수님(1948. 3)

김일성원수님은 대회에서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고 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의 과업과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방침을 내세우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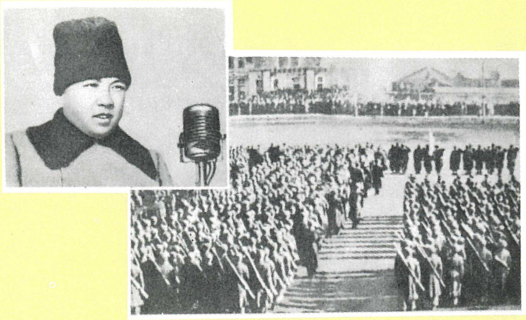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부정강을 발표하시는 김일성원수님

1948년 9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김일성원수님을 내각수상으로 모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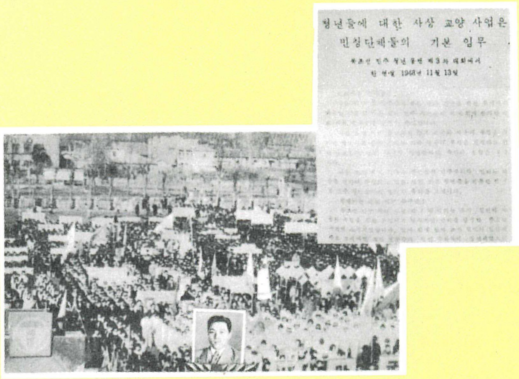
황해제철소 복구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침따라 우리의 로동계급은 일제가 파괴한 공장과 기업소를 복구하면서 2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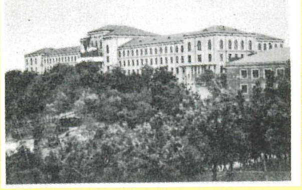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연설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1948년 2월8일 항일유격대원들을 골간으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로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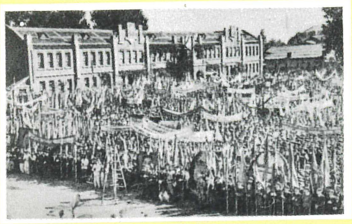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의 청년운동에 관한 력사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민청원들

민주청년동맹 제3차대회에서 하신 김일성원수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민청단체들이 청년들속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기지강화를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원수님은 해방전에는 공화국북반부에 하나도 없던 대학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들을 세워주셔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나라의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나게 하셨다.



조국전선결성을 지지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당은 미제와 리승만역도들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날뛰던 1949년 6월 70여개의 남북조선의 정당사회단체들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고 전체 조선인민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새조선건설시기 선전대활동을 하는 소년단원들

소년단원들도 새조선을 건설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도와나섰다.

김일성원수님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셨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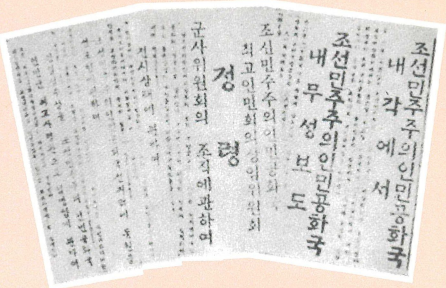


1950년 6월 26일 방송연설을 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방송연설을 통하여 당과 전체 인민을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성스러운 조국해방전쟁승리에로 불러일으키셨다.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미제의 무력침범자들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무장투쟁은 반제국주의적 민족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투쟁이며 피압박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되는 투쟁입니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무성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김일성원수님은 당,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들의 사업을 전시태세로 개편하시고 모든 힘을 전쟁 승리에로 동원하셨다.



남반부를 해방하며 진군하는 인민군전투원들

항상 당과 수령님께 충직한 우리 인민군전투원들은 김일성원수님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 북반부에 침입한 원쑤들을 쓸어눕히고 남으로 남으로 진격해 나갔다.



서울을 해방하는 인민군전투원들

영웅적 우리 인민군대는 김일성원수님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반공격에로 넘어간지 불과 3일만인 6월 28일에 서울을 해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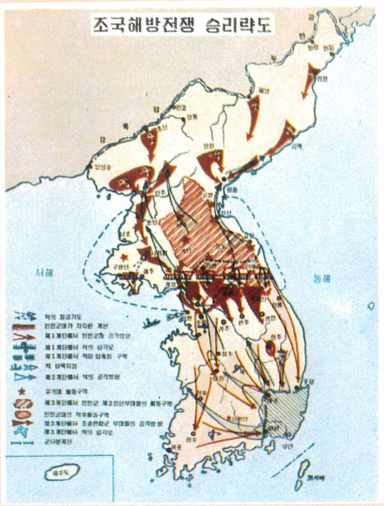
대전해방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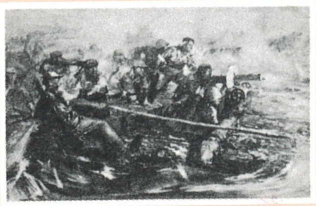
우리 인민군전투원들은 적들이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호통을 치면서 덤벼들던 금강계선의 적을 짓부시고 7월 20일에는 대전을 해방하였다.



전선으로 탄원해 나가는 로동청년들

미제의 무력침공이 시작되자 우리 나라 청년들은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고 하신 김일성원수님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앞을 다투어 전선으로 나갔다.





락동강전투

영웅적 우리 인민군전투원들은 반공격에로 넘어간지 불과 한달만에 적들을 락동강 남쪽의 좁은 지대에 몰아넣고 족쳤다.



면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위한 광주군 언주면대표자회

해방된 남반부지역인민들은 인민정권기관들을 복구하고 그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군, 면, 리(동)인민위원들을 선거하였다.



전선원호를 결의하는 소년단모임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 우리 소년단원들도 김일성원수님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전선원호에 모든 힘을 다 바쳤다.

김일성원수님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셨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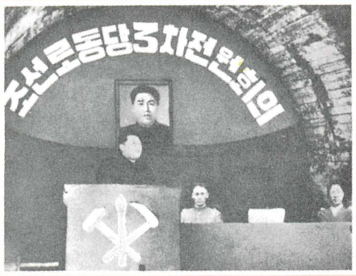


진격의 길에서

김일성원수님은 전쟁의 어려운 나날에도 진격의 길에 오른 조선인민군전투원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전쟁승리에로 고무하여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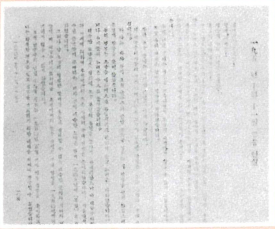
《흉악한 원쑤들을 격멸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는 기본조건의 하나는 우리 당이 어느때보다도 규률을 더욱 강화하며 당중앙위원회주위에 자기의 대렬을 강철같이 더 결속하는것입니다. …

당의 명령에 대하여는 비록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가 제때에 정확하게 실천하는 강력한 작풍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김일성원수님(1950. 12)

김일성원수님은 전원회의에서 당, 국가, 군사규률을 강화하며 후방을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안착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내놓으시여 전쟁의 승리를 촉진시키셨다.



김일성원수님은 1950년 10월 11일 방송연설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이 하여야 할 투쟁과업을 밝히셨다.



전투원들과 담화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최전선에까지 나가시여 전투원들을 전쟁승리에로 고무하셨다.



소년빨찌산

소년단원들도 김일성원수님의 방송연설을 높이 받들고 당의 지도하에 각지에서 소년빨찌산을 무어 용감하게 싸웠다.



적의 배후를 기습소탕하는 인민군전투원들

인민군전투원들은 공화국북반부에 침입한 적들의 배후에서 불벼락을 안겨 무리로 쓸어눕혔다.



전시 알곡생산에 일떠선 농민들

농민들은 적들의 야수적인 폭격속에서도 전쟁승리를 위하여 식량증산에 있는 힘을 다 바쳤다.



전쟁시기 김일성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고 있는 소년단원들

김일성원수님은 전쟁의 어려운 나날에도 학생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특히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셨다.



미제침략자의 패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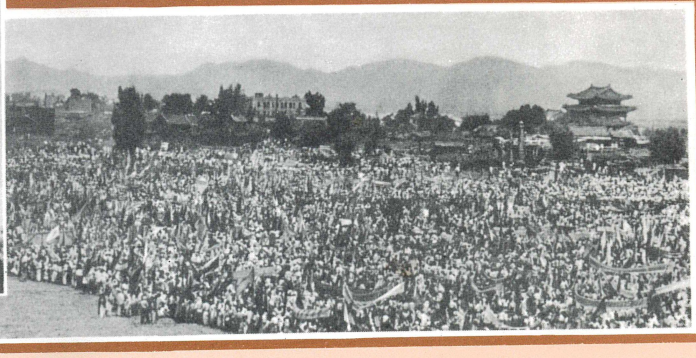
공화국북반부에 침입한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군전투원들의 불벼락에 죽음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소년호비행기》, 《소년호땅크》 헌납운동에 떨쳐나선 소년단원들

소년단원들은 적들의 야만적폭격속에서도 굴함없이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보낼 비행기, 땅크헌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김일성원수님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셨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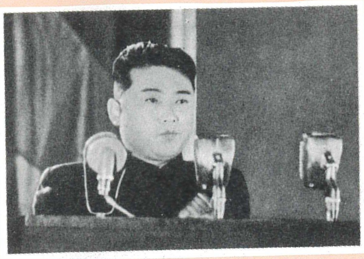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인민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는 김일성원수님

조선인민은 김일성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백전백승의 전략전술로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켜냄으로써 사회주의동방초소를 굳건히 수호하고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더욱 고무하였다.



전선에 계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최전선을 찾으시고 탁월한 전략전술로 전선작전을 지도하시여 전투원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전쟁승리에로 내닫게 하셨다.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김일성원수님(1952. 12)

김일성원수님은 전원회의에서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며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셨다.



전시 희천기계공장로동자들과 담화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공장을 찾으시여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전시생산을 지도하시는 한편 전후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방도까지 제시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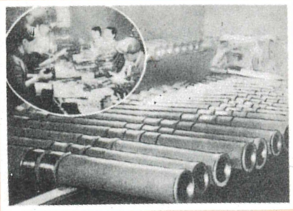
1211고지전투

1211고지의 인민군용사들은 조국의 한치의 땅도 목숨으로 사수하며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라고 하신 김일성원수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하루에도 수십차례 달려드는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최후 승리를 쟁취하였다.



평남도내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평남도를 비롯한 각지 농촌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하여 《금년도 파종은 전선이다》,《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라는 전투적구호밑에 농민들을 전시농업 증산에로 불러일으키셨다.



전시군수품생산에 일떠선 로동자들

로동자들은 전쟁의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모든 힘을 다하여 무기와 탄약생산을 보장하였다.



전선에서 위안공연을 하는 소년단원들

소년단원들은 학습의 여가를 타서 혁명적인 노래와 춤으로써 전선에서 싸우는 인민군대아저씨들의 전투사기를 높여주었다.



승리한 고지우의 인민군용사들



전선에 탄약을 운반하는 후방인민들

후방인민들은 적들의 야만적인 폭격을 무릅쓰고 전선원호에 모든 힘을 다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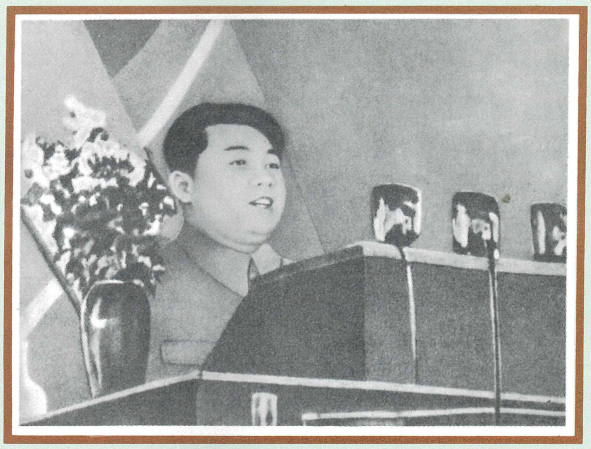
조국해방전쟁전과

▲살상, 포로한 적의 군대 —1 093 839명 그중미군—397 543명 괴뢰군—667 293명 그밖의 앞잡이 나라 군대—29 003명

▲마사버렸거나 빼앗은 적의 무기들과 탄알 비행기—12 224대 전차—3 064대 자동차—13 350대 함선—257척 각종 포—7 695문 각종포탄—489 260발 각종 총—119 710정 각종탄알—21 245 071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인민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에로 불러일으키셨다

《우리는 전후 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있습니다.》 (김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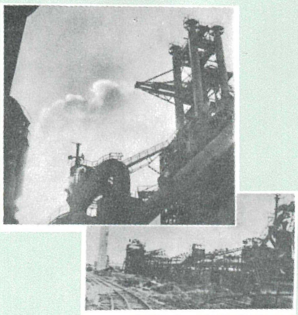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보고하시는 김일성원수님(1953. 8)

전후 우리 인민앞에는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였다. 전쟁에 의하여 공장,기업소들이 모조리 파괴되여 한그람의 강재,한장의 벽돌,한줌의 세멘트도 생산할수 없게 되였으며 거리와 마을은 재더미로 되였고 인민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였다.

이러한 때에 김일성원수님은 당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를 여시고 전후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인민경제복구발전에 대한 방침,조국통일의 구체적인 방도와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며 신해방지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김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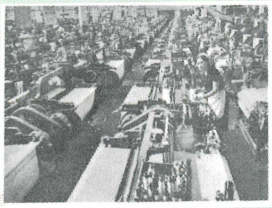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우리의 공업은 여지없이 파괴되였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은 김일성원수님의 부름을 받들고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짧은 시일내에 복구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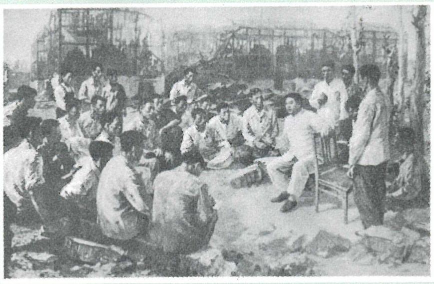
파괴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농민들

전후 농민들은 농촌경리를 급속히 복구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원수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알곡생산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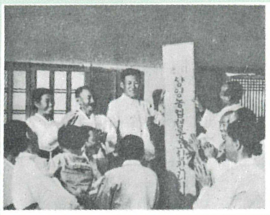
최신기술로 복구확장된 평양방직공장의 직포직장

김일성원수님은 령락된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나라 경공업발전에 높은 관심을 돌리시여 짧은 기간에 많은 경공업공장들을 일떠서게 하셨다.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전쟁의 불길이 멎은지 1주일만에 강선제강소를 찾으시여 공장복구에 일떠선 로동자들을 고무해주시며 공장복구방향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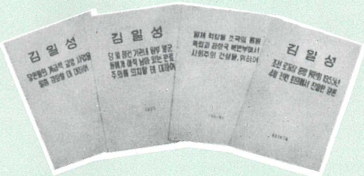
농업협동조합 조직

김일성원수님은 전후 농업협동화의 과업을 제기하시고 농민들의 열성이 점차 높아감에 따라 이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을 주셨다.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선 소년단원들

소년단원들도 전후복구건설에 일떠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일손을 도와 나섰다.



김일성원수님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당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고 일군들속에서 발로되는 관료주의사업작풍을 퇴치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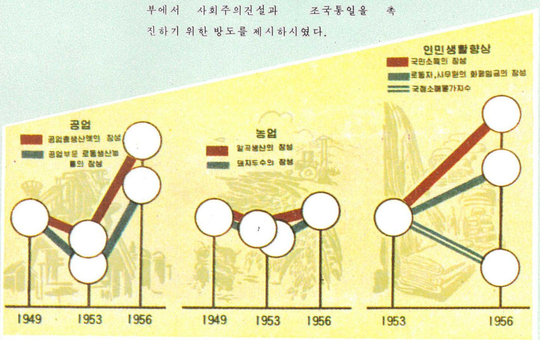
초등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첫등교를 하는 소년단원들

김일성원수님은 전후 어려운 조건에서도 후대교육을 위하여 먼저 웅장하고 아담한 학교를 지어주셨고 1956년부터는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주셨다.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

김일성원수님의 부름따라 청년학생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전후복구건설의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3개년인민경제계획의 자랑찬 총화

조선인민은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침따라 모든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3개년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



날을 따라 향상되는 인민생활

당과 김일성원수님은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생활향상에 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여 우리 인민의 생활은 향상되였다.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인민을 천리마로 내닫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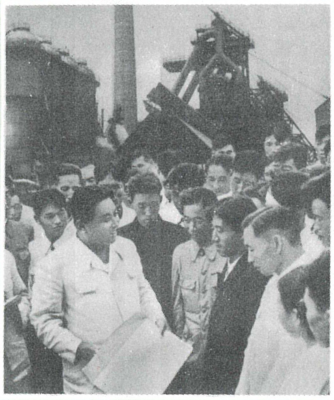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락후한것을 쓸어버리고 부단한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운동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였습니다.》(김일성)



《제1차5개년계획은 우리 인민경제의 락후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우리 나라를 자립적인 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키며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훨씬 높이려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김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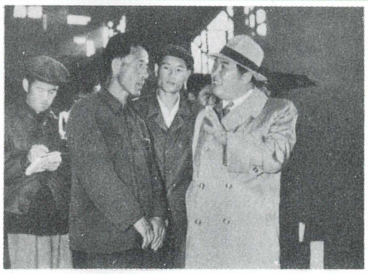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보고하시는 김일성원수님 (1956. 4. 23～28)

김일성원수님은 대회 보고에서 지난 기간 사업을 총화하시고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기초건설과 조국통일을 촉진하며 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과업들을 제시하셨다.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사회주의공업화에서 결정적고리의 하나인 금속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직접 제철소들을 찾으시여 걸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셨다.



강선제강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천리마운동을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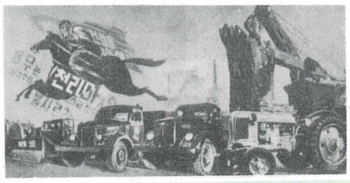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강서군 청산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새 환경에 맞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며 당 및 국가사업체계와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과업을 제시함으로써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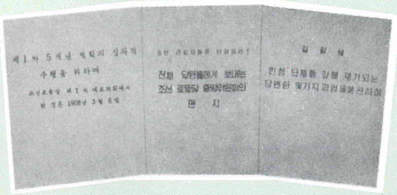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

김일성원수님은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협동화운동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시고 금후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천리마대고조속에서 이룩된 자립적민족경제의 빛나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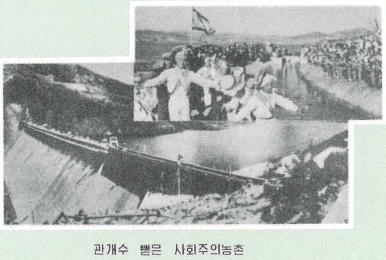
당과 김일성원수님께 충실한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하오》라고 하신 김일성원수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때려부시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현대식기계들을 생산하여 수령님의 부름에 충실하였다.



김일성원수님은 1958년 조선로동당 제1차대표자회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청산하시고 당내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과 제1차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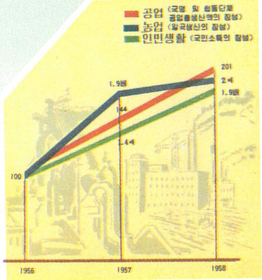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장애로 되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때려부시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할데 대한 붉은편지를 채택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였다.

김일성원수님은 조선민주청년동맹 제4차대회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조선민주청년동맹의 나아갈바 전투적강령을 제시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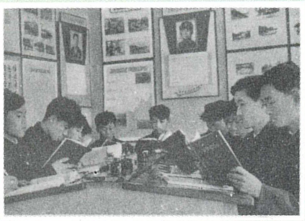


관개수 뺀은 사회주의농촌

김일성원수님은 농촌에서 수리화를 먼저 하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만풍년이 드는 사회주의농촌으로 되게 하였다.



5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닦아지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였다.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로작학습을 심오히 하는 청년학생들

김일성원수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청년학생들은 김일성원수님의 교시, 당정책을 일상적으로 학습하고있다.



중등의무교육의 실시

김일성원수님의 배려에 의하여 소년들은 또다시 1958년부터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되는 중등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였다.



나라에 《소년호뜨락또르》를 선물하는 소년단원들

소년단원들은 《꼬마5개년계획》활동을 살하여 《소년호뜨락또르》 《소년호자동차》 《소년호기중기》 등을 나라에 선물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훌륭히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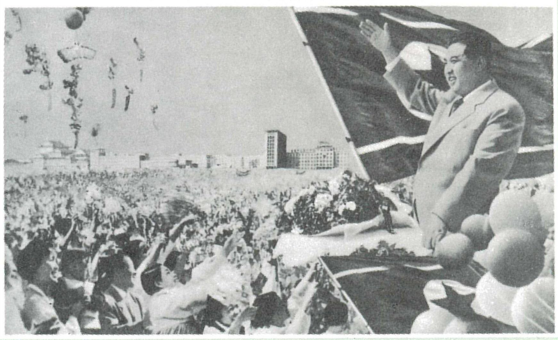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사회주의 높은봉우리로 가는길을 밝혀주셨다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보고하시는 김일성원수님 (1961.9)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다.》

(김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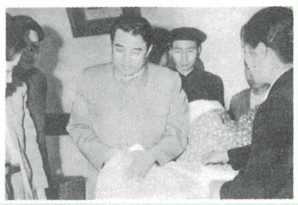


4천만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주위에 하나로 뭉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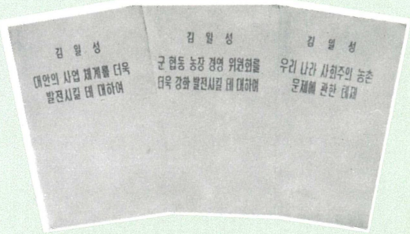
희천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김일성원수님

기계공업발전을 위한 김일성원수님의 지도는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일떠선 로동자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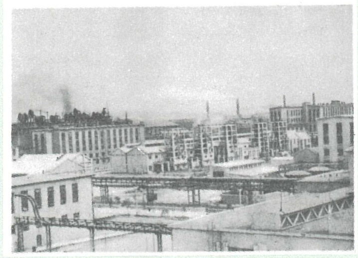


황해제철소로동자들의 합숙을 돌아보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나라일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인민의 생활형편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인민생활향상에 깊은 배려를 돌려주신다.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공업과 농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훌륭히 해결하시였으며 사회주의농촌문제에 대한 전면적해답을 준 위대한 농업강령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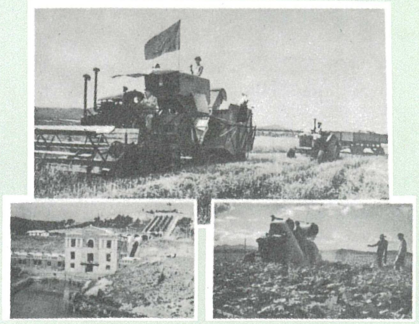
세계 1등급의 2.8비날론공장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김일성원수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의 기술과 기계, 원료들을 가지고 세계 1등급의 비날론공장을 세우고 오늘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비날론옷감을 생산해 줌으로써 자력갱생의 혁명적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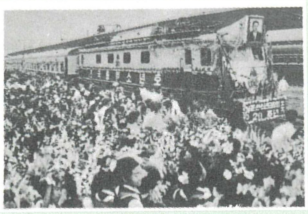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강령을 어김없이 실천할것을 결의다지는 청년학생들의 궐기모임

김일성원수님은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서 우리 나라 청년들이 당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준비하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침따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은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로 전변되여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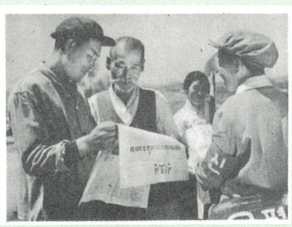


나라에 《조국통일소년호》전기기관차를 선물하는 소년단원들

김일성원수님의 품속에서 부럼없이 자라나고있는 소년단원들은 《꼬마7개년계획》활동을 잘하여 나라에 또다시 《조국통일소년호》전기기관차를 선물하였다.



《모범분단》운동의 첫봉화를 든 창덕학교 제18 《모범분단》소년단원들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법령을 환영하는 농민들

김일성원수님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의 농업현물세제를 폐지하시여 농민들을 세금의 부담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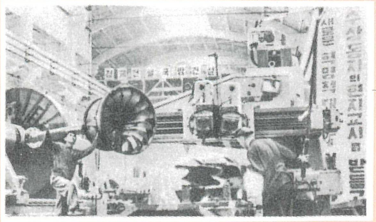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의 가리키신대로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일성원수님두리에 철석같이 단합된 조선인민

《조국통일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또 결코 달리는 될수 없는것입니다.》 (김일성)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받들고 사회주의대고조에로 일떠선 로동자들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정력을 다하고있다.



일당백의 조선인민군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영웅적조선인민군대는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당백의 혁명전사로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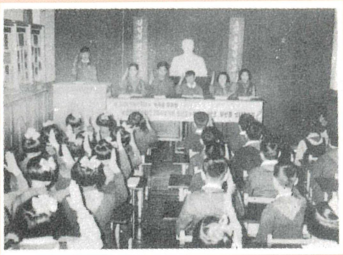


김일성원수님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다.



조국통일의 념원을 안고 알곡생산에 일떠선 농민들

우리 나라 사회주의협동농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착취밑에서 신음하는 남반부인민들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알곡생산에 떨쳐나섰다.



당대표자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도와나선 소년단원들

소년단원들은 《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기념 소년호》비행기, 땅크, 함선 등을 나라에 보내기 위한 애국적운동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반간첩투쟁을 잘하는 소년단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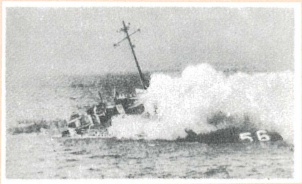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껏 도와나선 소년단원들은 혁명선렬들과 부모, 형님, 누나들이 피로써 지켜준 혁명의 전취물을 파괴하려는 원쑤놈들을 붙잡아내는 반간첩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로농적위대의 기계화부대

전체 인민이 무장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철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공화국북반부의 령해에 침입하였다가 격침된 적《경호함 56》호

만약 미제침략자들이 또다시 분별없이 덤벼든다면 《경호함 56》호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남반부농민들의 비참한 형편

남반부농민들은 피땀을 흘려 한해 농사를 지어도 미제와 그 앞잡이 박정희괴뢰도당과 지주놈들의 착취와 략탈로 가을부터 굶어 쓰러지고있다.

남반부로동자들의 비참한 형편

남반부로동자들은 아무런 안전시설도 없는 공장과 광산에서 하루 12~18시간의 로동을 하여도 차례지는 것은 빚과 죽음뿐이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 청소년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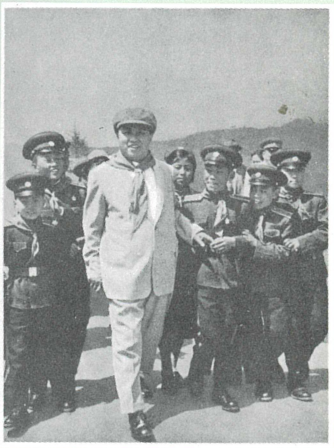
학교에서 쫓겨난 남반부소년들

남반부소년들은 한창 배울 나이에 깡통을 차고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겨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갖가지 부담금으로 학교에서 쫓겨나 배움의 길을 잃고있다.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1)



친아버지의 사랑



원아들속에 계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신다.



김일성원수님은 일본에서 살던 우리 동포들을 조국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하여주셨으며 미처 돌아오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를 보내주신다.



길주중학교 학생들과 담화하시는 김일성원수님

어린이들에게 항상 기쁨과 희망, 행복을 안겨주시는 김일성원수님은 직접 학교에까지 찾아오시여 학생들이 학습과 소년단생활을 잘할것을 친히 말씀해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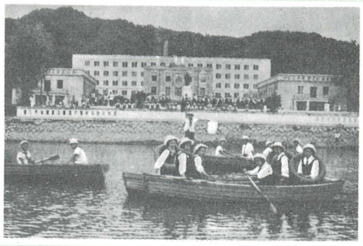


학생들의 옷맵시를 보살펴주시는 김일성원수님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해마다 철따라 새옷을 마련해주시고 그들의 학습과 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보살펴주신다.



전반적 9년제기술의무교육실시를 환영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과 학생소년들



석암소년단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소년단원들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명승지마다에 소년단야영소를 세워주시여 소년단원들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수 있게 해주셨다.



세계 1 등급의 평양학생소년궁전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2)



소년단원들속에 계시는 김일성원수님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소년단창립 15주년기념행사에 참가하신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소년단원들을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준비하도록 가르치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는 소년단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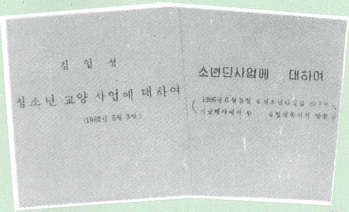


《조선소년의 영예상》메달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소년단원들

소년단원들은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혁명전사로 자라나기 위하여 김일성원수님의 교시학습과 혁명전통연구에 열중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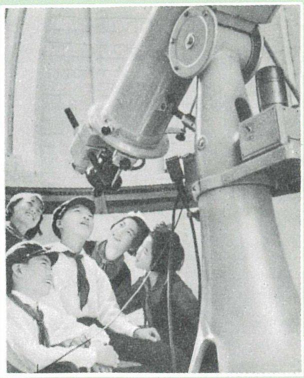
김 일 성

청소년 교양 사업에 대하여

(1962년 5월 3일)

소년단사업에 대하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에 위대한 강령적문헌으로 되는 1962년 5월 3일 교시와 조선소년단창립 20주년기념행사에서 하신 1966년 6월 5일 교시



김일성원수님이 지어주신 최신설비를 갖춘 평양학생소년궁전에 찾아가서 배운 지식을 깊게 다져나가는 소년단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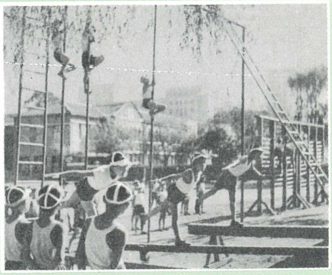


사회주의건설장으로 찾아가는 《소년선전예술대》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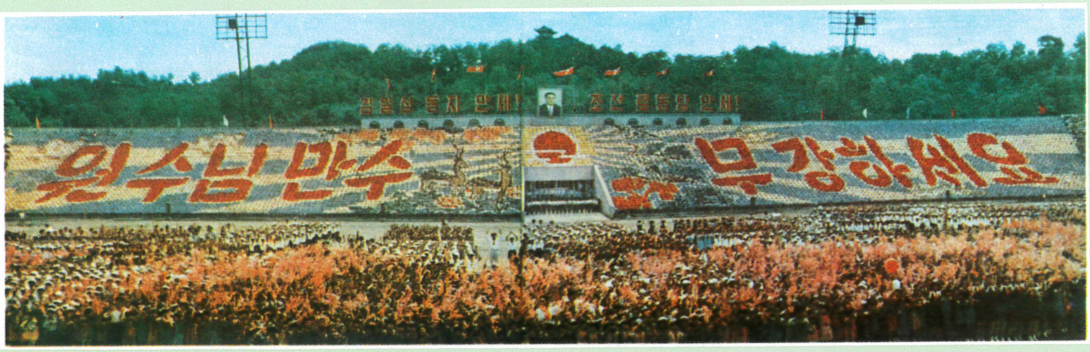


토요일 《소년단의 날》에 소년단위원회를 가지는 단위원들

소년단조직들은 김일성원수님의 교시를 소년단원들속에서 구체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단위원회를 열고 실천에서 얻은 훌륭한 경험을 나누고 실지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몸을 튼튼히 단련하는 소년단원들





김일성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

김일성원수님의 혁명활동 주요 년대표

년대	내용
1912. 4. 15.	김일성원수님 만경대(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에서 탄생.
1912. ~1919.	김일성원수님 고향—만경대와 봉화리(평안남도 강동군 고읍면 동삼리)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심.
1919.3.1.	김일성원수님 3.1운동에 참가.
1919. ~1923초.	김일성원수님 중강진, 림강, 팔도구에서 소년시절을 보내심.
1921겨울.	김일성원수님 팔도구소학교에 입학.
1923. 1.	김일성원수님 혼자몸으로 팔도구를 떠나 만경대로 나오심(배움의 천리길).
봄.	김일성원수님 창덕학교에 편입.
1925초봄.	김일성원수님 아버님이 포평에서 체포되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팔도구로 가심.
1925. ~1926.	김일성원수님 무송 제1소학교를 다니심.
1926 여름.~가을.	김일성원수님 화전현 《화성의숙》에 다니심. 《화성의숙》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ㅌ, ㄷ)》을 조직지도.
1926겨울.	김일성원수님 무송에서 《새날소년동맹》을 조직지도. 신문 《새날》을 발간.
1927봄.	김일성원수님 길림육문중학교에 입학.
	길림에서의 첫 조직으로 《조선인길림소년회》를 조직지도.
여름.	김일성원수님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고치고 지도.
	《반제청년동맹》을 조직지도.
	《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지도.
	길림육문중학교내 반동교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지도.
1928가을.	김일성원수님 길회선(길림—회령)철도부설 반대. 일본상품반대 투쟁을 조직지도.
1927. ~1929.	김일성원수님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 및 소위 공산주의자들과의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
1929말.~1930봄.	김일성원수님 길림감옥에서 옥중투쟁.
1930봄.~여름.	김일성원수님 무장투쟁의 첫 시도로서 무장소조를 조직하여 국내에 파견.
여름.	김일성원수님 카륜 및 고유수일대에서 대중단체를 조직지도하시여 농촌을 혁명화.
	김일성원수님 이 일대에서 활동하시는 기간 공청길동지구 비서로 사업하심.
가을.~	김일성원수님 오가자일대에서 대중단체를 조직지도하시여 농촌을 혁명화.
1931.	김일성원수님 돈화를 중심으로 여러지방에서 공청조직을 복구하고 혁명력량을 확대하기 위한 지하활동.
11.	김일성원수님 연길현 명월구회의에서 무장한 적과 싸우기 위하여 청년들이 무장할것을 제기.
1932. 4. 25.	김일성원수님 안도에서 조선인민의 진정한 첫 혁명적무장력인 항일유격대를 조직.
여름.	우리 나라 북부 국경지대와 동만의 광활한 지역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 창설.
	유격근거지—해방지구내에서 인민혁명정부수립,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개혁의 실시.
1933. 3.	김일성원수님 왕청현공청확대회의 조직지도
6.	김일성원수님 반일부대와의 통일전선형성을 위하여 라자구에서 담판.
9. 6.	김일성원수님의 총지휘밑에 동녕현성진공전투.
12. ~1934. 1.	왕청현 소왕청방어전투.
1934. 3.	김일성원수님 조선인민혁명군 편성.
6. 26. ~28.	왕청현 라자구전투.
6.	안도현 대전자전투.
겨울.	김일성원수님의 제1 차북만원정.
1935. 2. 말. ~3. 초.	왕청현 다홍왜회의.
3. 하순.	왕청현 요영구회의.
6.	동녕현 로흑산전투.
6.~1936. 1.	김일성원수님의 제2 차북만원정.
7.	녕안현 산동툰전투.
1936. 2.	녕안현 남호두회의.
3.	안도현 미혼진회의.
5. 1. ~15.	무송현 동강회의.
5. 5.	김일성원수님 조국광복회결성. 조국광복회 10대강령 발표.
6.	무송현 서강전투.
8. 17.	무송현성진공전투.
하반기.	백두산근거지 창설.
9. 1. ~2.	장백현 대덕수, 소덕수전투.
12. 1.	조국광복회기관지 《3.1월간》 창간.
1937. 2. 14.	장백현 홍두산전투.
2. 26.	장백현 리명수전투.
3.	무송현 서강회의.
6. 4.	김일성원수님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출—보천보전투.
6. 30.	장백현 간삼봉전투.
8.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원 및 병사대회.
9.	김일성원수님 중일전쟁 발발과 관련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1938. 4. 26.	림강현 6도구전투.
11.	몽강현 남패자회의
겨울.~1939봄.	김일성원수님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의 몽강에서 장백에로의 고난의 행군.
1939봄.	장백현 15도구전투.
4.	장백현 북대정자회의.
5. 18. ~23.	김일성원수님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출—무산지구전투.
8.	일제의 할힌골침공과 관련하여 김일성원수님 명령 발표.
12.	돈화현 륙과송, 쟈신즈전투.
1940. 3. 11.	화룡현 대마록구전투.
3. 25.	화룡현 홍기하전투.
8.	돈화현 소할바령회의.
1941. ~ 1945.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활동.
1945. 8. 9.	김일성원수님 조선인민혁명군을 친솔하시고 조선해방을 위하여 일제에 대한 총공격 개시.
8. 15.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대한 승리. 일제의 패망과 조선 해방.
	김일성원수님 조국 개선.
10. 10.	김일성원수님 조선공산당 창건.
10. 14.	김일성원수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여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11. 15.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 제2 차확대집행위원회.
12. 17. ~18.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 제3 차확대집행위원회.
1946. 1. 17.	**김일성원수님 조선민주청년동맹 창립.**
2. 8.	김일성원수님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수립.
3. 5.	토지개혁법령 발포.
3. 23.	김일성원수님 20개조정강 발표.
6. 6.	**김일성원수님 조선소년단 창립.**
6. 24.	로동법령 발포.
7. 30.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8. 10.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발포.
8. 28.~30.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
11.	김일성원수님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전개할데 대한 방침 제시.
1947. 2. 22.	김일성원수님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직.
3. 15.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 차회의.
1948. 2. 8.	김일성원수님 조선인민군 창건.
3. 27.~30.	북조선로동당 제2 차 대회.

년대	내용
1948. 4. 20.~25.	남북조선제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	남조선인민들 5.10단선 반대투쟁.
8. 25.	남북조선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9. 9.	김일성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949. 6.	남북조선로동당 합당.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
11.	김일성원수님 산업부문 경제및 직맹열성자대회에서 경제지도일군들이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업방법을 배울것을 제시.
12. 15.~1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2 차 전원회의.
1950. 6. 25.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무력침공. 조국해방전쟁의 개시.
6. 26.	김일성원수님 방송연설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원수님을 수반으로하는 군사위원회 조직.
6. 28.	서울해방.
7. 8.	김일성원수님 방송연설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
9. 16.~25.	서울, 인천방어전투.
10. 11.	김일성원수님 방송연설.
12. 21. ~2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 차전원회의.
1951. 9.~11.	1211고지전투.
11. 1.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차전원회의.
1952. 2. 1.	김일성원수님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당지도일군 련석회의에서 연설 《현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12. 15.~1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1953. 7. 27.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 미제의 패배.
8. 5~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 차 전원회의.
12. 18.~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 차 전원회의.
1954. 3. 21.~2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 월전원회의.
11. 1. ~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1월전원회의.
1955.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로 결정.
4. 1.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 월전원회의.
12. 2. ~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12. 28.	김일성원수님 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1956. 4. 23.~28.	조선로동당 제3 차 대회.
8. 30.~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
12. 11. ~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
1957. 4. 18. ~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 월전원회의.
10. 17. ~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0월전원회의.
12. 5. ~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확대전원회의.
1958. 2. 5.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새국면을 개척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정부성명 발표.
3. 3.~ 6.	조선로동당 제1 차 대표자회.
6. 5.~ 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6월전원회의.
8.	농촌경리의 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 완성.
9. 8.	김일성원수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경축대회에서 보고.
9. 26~2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9 월전원회의.
10.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할데 대한 법령 발포.
11. 20.	김일성원수님 전국 시, 군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연설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1959. 1. 5. ~9.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
2. 23. ~2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 월전원회의.
6. 27. ~3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6 월전원회의.
12. 1.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확대전원회의.
1960. 2.	김일성원수님 청산리와 강서군 현지지도.
4. 19.	남조선인민들 리승만괴뢰정권을 타도.
8. 8. ~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월 확대 전원회의.
8. 18.~22.	전국 천리마작업반운동 선구자대회.
11. 18.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 기 제8 차회의.
12. 20.~2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 확대 전원회의.
1961. 9. 11.~18.	조선로동당 제4 차대회.
11. 27.~12.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기 제2 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2. 6. ~16.	김일성원수님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
12.	김일성원수님 평남도 숙천군을 현지지도.
1962. 3. 6. ~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기 제3 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8. 7. ~8.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
11. 9.	김일성원수님 대안전기공장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연설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11. 13.	김일성원수님 평남도내 당 및 농촌경리일군협의회에서 연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12. 10. ~1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기 제5 차전원회의.
1963. 5. 13. ~1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기 제6 차전원회의.
9. 3.~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기 제7 차전원회의.
1964. 2. 25.	김일성원수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기 제8 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
6. 25. ~2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기 제9 차전원회의.
12. 14. ~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기 제10차전원회의.
1965. 6. 29.~7.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기 제11차전원회의.
10. 10.	김일성원수님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 경축대회에서 보고 《조선로동당 창건 20주년에 제하여》.
11. 15.~1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기 제12차전원회의.
1966. 3. 28.~4.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기 제13차전원회의.
4.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농업현물세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법령 발포.
10. 5.	김일성원수님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보고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11.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 발포.
1967.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기 제15차전원회의.
5. 25.	김일성원수님 당 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연설 《당면한 당 선전사업방향에 대하여》.
6. 28. ~7. 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 기 제16차전원회의.
8. 12.	김일성원수님 론문 《반제 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발표.
12. 16.	김일성원수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 기 제1 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정강 발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ㄱ-73395 발행소 학생소년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발행 1968년 4월 15일

김일성원수혁명활동연구실도록

총련결성 15주년기념

번각발행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인　　쇄	학　우　서　방
발　　행	1970년 2월